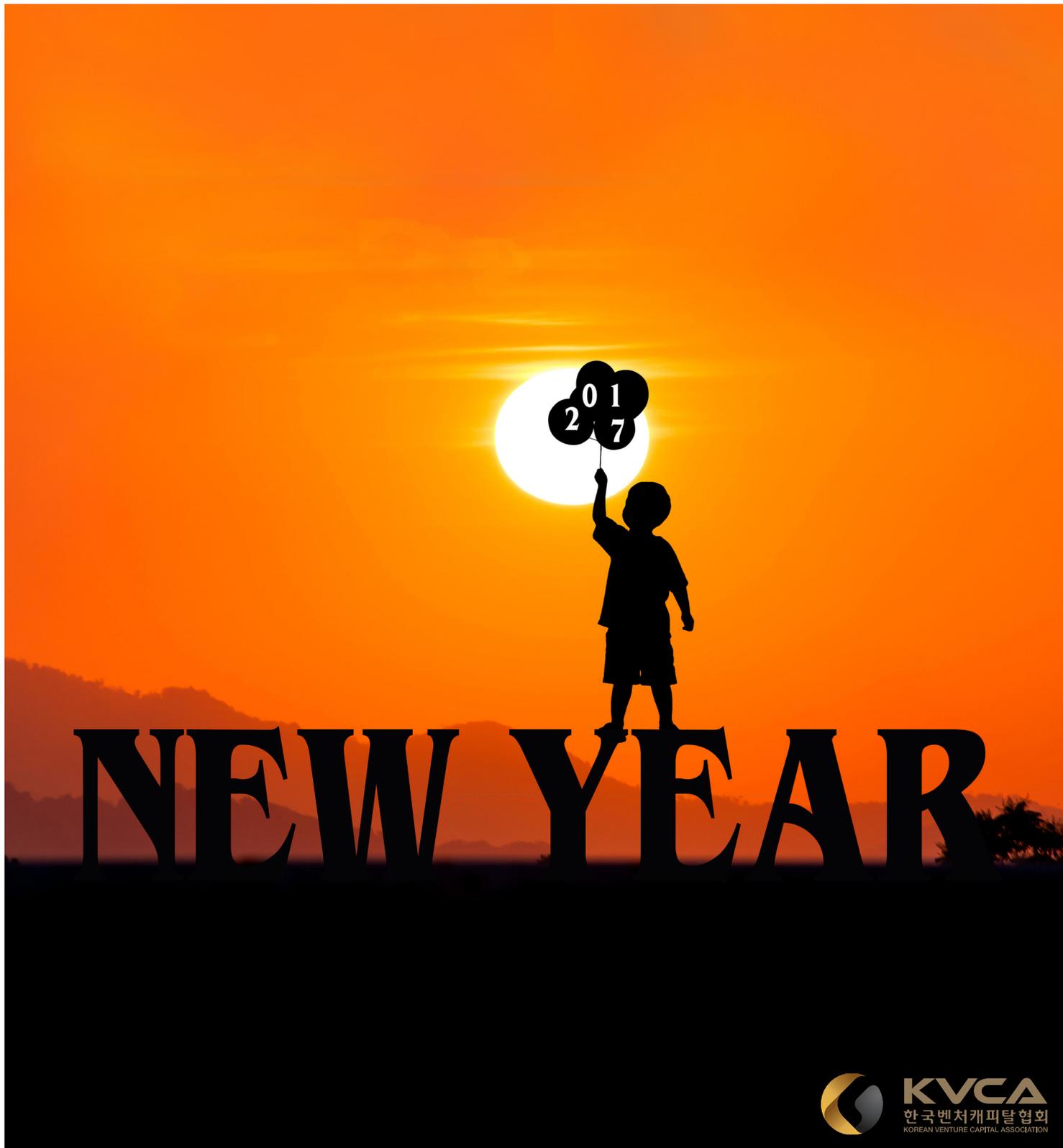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VENTURE CAPITAL NEWSLETTER 103호 / 2017년 01월



목 차

신년사

2016년 벤처캐피탈 회고

뉴스&리뷰

KVCA 소식

- 문화콘텐츠투자기관협의회
- 외국인투자기관간담회
- 불우이웃돕기 성금전달

연수원 소식

- 2016년 벤처캐피탈 Planning Manager 고급과정
- 2016년 동남권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 과정

투자협력·M&A

-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 M&A 활성화 지원사업
- 벤처투자 로드쇼
- 벤처투자 사랑방
- 2016년 환경산업 투자유치 지원사업 운영성과
- 한·중 벤처투자 컨퍼런스
- 2016년 신규 벤처기업확인 연간현황

협회장 동정

- 'The Start-up Korea, KVIC 2016' 참석
- '2016 한국여성벤처협회 송년의 밤' 참석

회원사 소식

이 슈

4차 산업혁명을 대하는 VC의 자세

창업투자회사 등의 이해상충방지 내부통제기준 개정
VC관련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현황
벤처캐피탈 법률 Q&A

시장동향

11월 벤처투자 시장동향

(VC포커스) 해외 3분기 벤처캐피탈 통계 (중국, 유럽)
주요 LP 출자계획 및 선정결과

편집자노트

4차 산업혁명의 지속적인 성공조건

■ KVCA 12월 주요일정

일 자	행사명	장 소	비 고
2017.1.04-10	2017 CES	미국 라스베이거스	참가단 15명
2017.1.11	회장단 회의	파크 하얏트 호텔	
2017.1.11-13	2016 동남권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 과정(필수)	양평 대명리조트	2박 3일 숙박과정
2017.1.16	2017 벤처업계 신년인사회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	200여명 참석
2017.1.17	제1차 기획위원회	미정	
2017.1.18-22	벤처회 워크숍	베트남 다낭	

정기구독 신청문의, 기고 보내주실곳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3층 한국벤처캐피탈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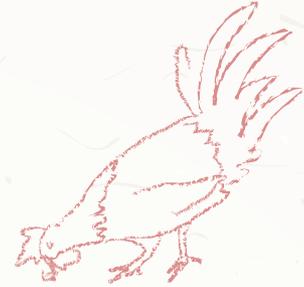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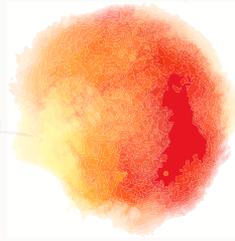
| TEL | 02-2156-2103

| FAX | 02-2156-2110

| E-mail | newsletter@kvca.or.kr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2017년 붉은 닭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회원사를 포함한 벤처캐피탈 업계와 관련한 모든 분들의 가정 내 평안과 일터에서의 승승장구를 기원합니다.

2016년 한해에도 벤처업계의 호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실적을 마무리하면 벤처 신규투자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반기까지 지난해와 비교하여 투자실적이 저조한 모습을 보이자 업계성장에 제동이 걸린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각이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앞으로도 지속성장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특히 2016년에는 다양한 유형으로 벤처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한해였습니다. 이를 통해 업계의 다양성과 투자지변이 함께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제도화되어 실시되었고 액셀러레이터 또한 법제화 되었습니다. 또한 증권사의 신기술 금융업 등록이 허가되면서 대형증권사부터 중소형 증권사까지 벤처투자 업계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에 투자기관 간 협업을 통해 업계 전체의 지속가능한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간 소통이 요구됩니다. 보다 체계적인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사 여러분!

항상 업계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의 정권교체와 국내의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치 않더라도 지지치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갑시다. 협회가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정유년은 붉은 닭의 해로, 행운을 부르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인 '탄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 벤처업계에도 항상 행운이 깃드는 한해가 되어 또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의미있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성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2016년 벤처캐피탈 회고

장일훈 / 경영지원팀 팀장



매년 새해가 되면 그렇듯 2016년에도 VC업계는 많은 관심과 기대로 시작되었다. 올해가 벤처캐피탈에게 더 특별하고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국내 벤처캐피탈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1986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30년이 되는 해였고, 특히 작년에 신규투자와 조합결성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회수측면에서도 해산조합의 수익성이 향상되면서 호조세를 이어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우려 섞인 시장의 목소리도 있었다. 모태펀드 중진계정이 전혀 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동안 시장자금이 넘쳐나 투자과열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 등 2016년 초 VC업계를 둘러싼 투자환경을 걱정하는 일부 지적도 있었다.

상반기까지의 실적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신규투자는 4.5% 감소하였지만 조합은 170% 증가하여 종합적으로는 양호한 중간성적표를 받았다. 특히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기업 등 민간자금의 대체투자처로 벤처투자가 각광받으면서 향후 지속적인 민간자금 유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였고, 기존의 ICT서비스, 프로젝트 등에 집중되어있던 초기투자가 바이오/의료 분야로 확대되며 초기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딜이 진행되는 등 이전과는 다른 투자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연말을 지나는 시점에서 벤처캐피탈의 2016년을 되돌아보면, 투자나 조합결성 등의 지표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었고, 이는 투자측면, 제도개선, 경영환경에서의 변화들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투자측면에서 업계는 질정성장을 보여주었다.

금년 11월까지 1,057개사에 총 1조 8,526억원을 집행하여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하였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금액으로는 0.9%, 투자기업수로는 13.0%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2015년도 투자실적이 사상 최고치였고 금년실적도 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남은 12월에도 투자확대 정책 등에 힘입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에 이어 올해도 벤처투자시장의 투자규모가 견조하게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특히 업종별로는 바이오/의료 업종에 대한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IT투자 일변도에서 벗어나 바이오/의료를 중심으로 한 신수종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였다. 11월까지 투자금액이 3,96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는 37.3%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이미 전년 전체투자를 경신한 기록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방투자가 여전히 낮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년 11월까지의 지방투자 비중이 7.8%에 그치고 있는데 지방투자활성화 정책이나 지원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2013년 15.0%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투자대상이 되는 기업군, 특히 새로 창업하는 기업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몰려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업력별로는 3년 이하의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약진이 눈에 띈다.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36.7%로 나타나 중기 27.8%, 후기 35.5%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특히 초기에 해당하는 기업수도 많았지만 평균투자금액이 13.7억원에 달하는 등 투자규모도 늘어났다.

한편, 조합결성을 통한 투자재원실적은 올해 11월까지 총 102개 조합이 총 2조 5,931억원으로 결성되어 사상 최고치였던 전년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에는 창업지원법, 벤처기업법 등 업계와 관련해서 규제완화 측면의 크고 작은 제도변화도 있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창투자, 신기술사(여성전문금융업법), PEF(자본시장법) 등 투자기관간의 장벽이 다소 낮아졌다는 것이다. 신기술사가 창업투자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창업지원법 제20조), 창투사가 자본시장법상 기관투자자로 인정되어 공모주 참여가 가능하게 된 것(10/5 금융위원회 발표 ; 금년 중 개정예정), 창업·벤처전용 PEF 설립근거, 이를 활용한 벤처투자에도 세제지원 제공 등이 그것이다. 투자기관은 조합결성이나 투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업종간 경쟁심화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각 업종별 투자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KVF 결성시 모태펀드 의무출자 조건완화(M&A 및 세컨더리 분야), 창업투자조합 결성주체 확대(기존 창투자 → 신기술사, 유한회사 등 추가), 조합의 출자지분 양도요건 완화(지분양도 조항신설) 등 조합결성을 위한 기본 요건 등이 시장 친화적으로 완화되어 이를 통해 앞으로 민간자금 유입이 보다 수월해지고 조합결성 및 운용 또한 이전보다 유연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과거 전문인력 확인업무와 함께 금년에 창투조합, KVF의 등록·관리업무를 협회로 이관하여 업무효율성이 높아지는 등 행정처리에 있어 업계와의 거리가 최소화되는 계기도 마련되었다.

이외에도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벤처캐피탈의 벤처투자를 기업소득에 대한 환류투자자로 인정,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 투자방식 도입 등 우리업계에서 그동안 요구해오던 세제 및 투자방식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열린 정책을 보여주었다.

한편, 금년에 검토가 완료되어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도 있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때 조합원수를 1인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KVF의 행위제한이 신설되어 관련규정 명확화,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자회사(특수관계인)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조합설립 및 운영까지 시장이 요구하고 있는 제도로 점차 발전하고 있다. 경직된 관리·감독 보다는 시장자율에 맡기는 자율규제로의 변화로 향후 우리 벤처투자업계가 글로벌 수준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에는 업계를 둘러싼 경영환경의 변화도 있었다.

우선 9월에 「청탁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시행초기에는 다소 혼란이 있었고 VC업계에서도 직접적용 대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벤처캐피탈은 직접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중론으로 모아지면서 잠깐 동안 위축됐던 분위기가 완화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큰 부작용 없이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창투사수는 작년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작년에 14개사, 금년 10월까지 9개사가 등록을 완료했다. 이는 최근 저금리 정책기조, VC의 수익성 증대, 투자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은 결과로 당분간 신규로 진입하는 회사가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기술사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업종간 보이지 않는 경쟁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회수부문에 있어서는 '테슬라요건'으로 불리는 성장성 특례제도가 도입·확정되는 등 상장제도의 변화가 있었으며, M&A활성화를 위한 각 부처의 정책이 수립되면서 M&A 인프라가 확충되는 양상으로 그동안 장외매각 및 상환에 치중되었던 VC업계의 회수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다만, 전년에는 코스닥지수가 기중에 780선을 돌파하면서 2007년 이후 8년만에 최고점을 기록하는 등 회수환경이 매우 좋았다면 올해는 상황이 그다지 좋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전년도에는 94개사(SPACV포함)가 IPO에 성공하여 VC투자기업의 회수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올해는 작년의 약 63% 정도로 저조한 실정이며, 이로 인한 회수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투자윤리와 관련한 업계관심도 고조되어 창투자 이해상충방지체계 및 내부통제기준을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협회차원에서는 전문 인력의 윤리강화교육이 3회로 확대 개최되는 등 업계 내 투자윤리를 점검하는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2016년도의 벤처투자업계는 제도나 경영환경 측면에서의 다양한 변화가 있었고 업계는 시장참여자로 벤처캐피탈 본연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활발한 투자, 성숙하고 전문성 있는 운용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앞장섰으며,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일조하는 기술금융으로서의 제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국내외 정치적 리스크를 비롯한 경기침체, 자금경색 등의 위협요소와 함께 새로운 산업발굴, 비즈니스 기회창출 등 성장기회가 기다리는 2017년을 앞에 두고 있다. 올해도 그랬던 것처럼 2017년 벤처캐피탈의 성장과 역할이 기대된다.

01

뉴스&리뷰
NEWS & REVIEW



KVCA 소식

문화콘텐츠투자기관협의회

12월 8일 본회 회의실에서 올해의 마지막 문화콘텐츠투자기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마지막 회의인 만큼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벤처투자 통계 및 관련 이슈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2017년 활동계획 논의 후 만찬으로 마무리하였다.

외국인투자기관간담회

외국인투자기관간담회가 12월 23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간담회에는 레드배지퍼시픽, 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 애플론벤처파트너스, 테크코드, 빅베이슨캐피탈, Draper Athena, 아이디지캐피탈파트너스 등 7개사 10명이 참석하였으며 글로벌진출 계획이 있는 기업(아담스컨퍼니)의 IR이 약15분간 진행되었다. 이후 액셀러레이터 관련법과 창업벤처전문PEF 등에 대한 이슈를 공유하고 오찬시간을 통해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전달



본회는 매년 연말이 되면 CSR의 일환으로 사무국 임직원 전체가 회원사들과 함께 연탄나눔봉사를 해오고 있다. 올해 또한 봉사활동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우천으로 행사가 취소되어 회원사인 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의 후원금과 함께 봉사단체에 성금을 따로 전달하였다.

※ 2017 제 1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 안내

일 자	행사명	장 소	비 고
2017.2.2	제1차 이사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조찬
2017.2.16	정기총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오찬

연수원 소식

2016년 벤처캐피탈 Planning Manager 고급과정

본 교육은 '16년 8월 진행되었던 Planning Manager 초급과정의 연장선으로, 보다 심화된 기획·관리 실무를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총 45명의 교육생들은 1박 2일간 합숙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업무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교육생들의 투자조합 관련 세제 및 세무처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매 년 협회에서 발간하는 ‘벤처캐피탈 세무처리 안내서’를 배포하였다.

일자 : 2016년 12월 8일 ~ 12월 9일
(1박 2일 합숙)
장소 : 강촌 엘리시안 리조트 2층
메이플홀



내용	강사
벤처캐피탈 회계 및 세무처리 - 조합 배분 중심, Case Study	신한회계법인 이사(회계사/세무사) 나세덕
개정(입법) 법률 해설 - VC, 신기사, LLC, PEF - 해외 벤처투자 법령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 이종건
벤처캐피탈회사 경영(인사)관리 - 시스템, 성과급 등 Case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이사 박정운
벤처투자 관련 현황 및 정책 현황	에이티엠인베스트먼트/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전무/과장 김성섭
주요 LP의 VC 펀드 출자 사업 - 법, 규정, 제안서 등 체크포인트	한국투자파트너스 실장 김창호
벤처투자의 리스크 및 사후관리 벤처(KVF) 펀드 규약 위반 이슈사항 등	케이비인베스트먼트 이사 한철호 한국벤처투자 팀장 최철훈

2016년 동남권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 과정

벤처투자 활성화 및 투자 촉진 기반 조성을 위해 부산 선담에서 12월 21일부터 5일간 동남권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 과정 - 공통과정을 실시하였다.

필수과정은 '17년 1월 11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되며, 두 과정을 모두 이수한 교육생들에게 수료증이 주어질 예정이다.



[공통과정]

일자 : 2016년 12월 21일 ~ 12월 23일,
12월 26일 ~ 12월 27일
(5일 출석)
장소 : 부산 센텀 10층 이벤트홀

내용	강사
공통과정	
한국의 벤처캐피탈산업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 이의준
벤처캐피탈 투자방법 및 단계별 특징	엘비인베스트먼트 전무 구중희
벤처캐피탈과 법률 - 창업지원법, 벤츠편, 자동법 등	변호사 이종경
Valuation & Pricing(업종별 예제)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 대표 이현재
벤처기업 투자와 Value up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대표 윤건수
IPO와 회수전략에 대한 이해 - 코넥스, SPAC, 프리보드 등	에스브이파트너스 상무 김회천
중국 VC/PEF시장 현황 및 투자 Case Study	엘비인베스트먼트 VC부문 대표 박기호
Venture Capital(Fund) 및 PEF Tax 비교	삼화회계법인 부대표(회계사) 박종대
투자심사보고서 작성 및 Due-Diligence 사례	유안타인베스트먼트 이사 정영관
VC투자 핫 이슈 I : 전문 벤처캐피탈리스트에게 듣다. - 초기 및 Seed 단계 기업 투자 분석, 사례	수림창업투자 이사 손민호
VC투자 핫 이슈 II : 전문 벤처캐피탈리스트에게 듣다. - 바이오	케이비인베스트먼트 본부장 신정섭
벤처기업 M&A 절차 및 Case Study	티에스인베스트먼트 팀장 장용욱
SCREENING & ANALYZING BUSINESS PLANS	에트리홀딩스 대표 조병식
VC투자 핫 이슈 III : 전문 벤처캐피탈리스트에게 듣다. - 문화콘텐츠&프로젝트	키움인베스트먼트 수석심사역 고성호

[필수과정]

일자 : 2017년 1월 11일 ~ 1월 13일
(2박 3일 합숙)
장소 : 양평 대명리조트 백합홀

내용	강사
필수과정	
사업타당성 등 분석 사례 및 심사보고서 작성 실무	
- ICT서비스/유통	보광창업투자 이사 신윤수
- 제조/전자/부품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전무 하태훈
- 바이오	케이비인베스트먼트 팀장 권인호
비상장기업 재무(부실예측) 분석(업종별 Case Study)	신정회계법인 이사/회계사 박상학
투자계약서 작성 실무 및 Case Study	
- 신주(RCPS) 인수 투자계약서 (Refixing, Tag-along, 이해관계인 등)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 류권영
- CB, BW 투자계약서	
Fundraising 제안서 작성 실무	케이비인베스트먼트 이사 한철호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전무 하태훈
	케이비인베스트먼트 팀장 권인호
심사보고서 팀별 발표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 류권영
	신정회계법인 이사/회계사 박상학
	수림창업투자 이사 손민호

※ 벤처캐피탈리스트와의 교류회 (1월 11일(수) 19:00)

-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부장 남범인
- 대성창업투자 팀장 박문수
- Trans-Pacific Technology Fund 파트너 이정석
-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수석심사역 신동원
- 수림창업투자 이사 손민호
- 키움인베스트먼트 수석심사역 고성호

투자협력·M&A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Emerging Technologies Forum

본회가 매년 말 신기술 투자유망 분야에 대한 투자심사역의 이해도 제고와 투자확대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투자유망 신기술분야 세미나인 '2016 Emerging Technologies Forum'이 지난 12월 13일 COEX에서 100여명의 심사역과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미래전략(이광형 KAIST 학과장) △ 로보어드바이저 국내외 동향 및 향후 전망과 기술과제(이지혜 에임 대표) △ VR산업 글로벌 동향 및 국내외 핫이슈(서동일 블레 크리에이티브 대표) △ 21세기 보건의료 방향 : Genomic vs. Metagenomic Medicine(김윤근 MD 헬스케어 대표) 등 앞으로 새로운 시장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AI(Artificial intelligence), VR(Virtual reality),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기술사업화 컨벤션

2008년부터 본회가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청 R&D지원사업인 투자연계과제 선정기업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성과 제고를 위해 기술사업화 컨벤션이 지난 12월 6일 COEX에서 개최되었다. 중국 상하이역 벤처캐피탈 6개사와 투자연계과제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투자유치, 해외진출, 기술이전/거래 등을 주제로 △ 중국 투자기관 초청 투자유치 설명회 △ 기술사업화 세미나 △ 기술사업화 상담회가 진행되었다.



2016년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운영결과

협회는 2016년도 투자연계과제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 투자유치상담회(VC Meeting Day, 9회) △ CEO, 실무자, VC 대상 세미나(3회) △ 기술사업화 컨설팅(Venture Co-Biz Program, 10개사) △ 투자유망품목 발굴(175개)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2008년 이후 선정된 기업의 연구개발성과물에 대한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후지원 프로그램이 올해 처음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서 △ CEO조찬세미나(3회) △ 중국 투자기관 초청 IR 및 상담회(2회) △ 경영 및 사업화 비용지원(21건) △ 기술사업화 컨벤션 △ 실무자 역량강화 세미나 등이 진행되었다.

12월 CEO 조찬세미나

본회는 지난 12월 6일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2008년 이후 선정된 투자연계과제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2017년 경제·금융환경 변화와 대선 이후 기업환경 점검(연사 :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팀장)’을 주제로 하여 조찬세미나를 개최하였다. CEO 조찬세미나는 인문·경영·과학분야 명사초청 네트워킹 포럼으로, 매월 초 투자연계과제 선정기업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개최 될 예정이다. 다음 조찬세미나는 1월 17일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2월 VC Meeting Day

2016년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선정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VC Meeting Day가 12월 6일과 23일에 개최되었다. 본회는 투자심사역과 선정기업 투자유치담당자가 1:1로 만나 투자유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2회에 걸쳐서 개최된 행사에는 기업과 심사역 20명이 참석하였다.

M&A 활성화 지원사업

본회는 2016년 3월 중소기업청의 M&A 활성화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신규지정 된 이후, 짧은 기간 동안 M&A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내외 M&A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M&A 시장 저변확대를 위해 힘썼으며, M&A 자문기관·지원센터 등과 간담회, 워크샵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M&A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의견을 지속적으로 교류하였다. 올해 본 사업을 통한 M&A 성사건수는 처음으로 70건을 돌파하였으며, ‘15년까지 M&A 성사사례가 없었던 M&A 펀드를 통한 M&A 성사건수(SGI성장기업M&A투자조합제1호,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가 2건 신규로 발생하는 등 M&A를 통한 선순환 벤처 생태계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회는 내년에도 M&A 뉴스레터 발간, M&A 매칭행사 확대, M&A 인식개선, M&A 우수 자문기관 육성 등 신규사업 추진을 통하여 M&A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스타트업 M&A가 활성화 될 수 있는 M&A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벤처투자 로드쇼

지방유망기업 벤처투자로드쇼

지난 12월 13일 COEX에서 “Emerging Technologies Forum”의 부대행사로써, 그동안 로드쇼를 통해 발굴된 전국의 유망기업과 ‘TIPS프로그램’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및 투자 상담회를 지원하는 ‘지방 유망기업 벤처투자로드쇼’를 개최하였다. ‘지방유망기업 벤처투자로드쇼’는 총 19개사의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투자설명회(6개사)와 투자상담(19개사)을 개최하였다. 투자설명회에 참여한 6개 기업은 “Emerging Technologies Forum”에 참여한 국내·외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2016년도 벤처투자로드쇼 운영성과

본회는 수도권과 지방간 투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 벤처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벤처투자 로드쇼를 운영중이며 2016년 총 7회*에 걸쳐, 지방중소기업 149개사, 벤처캐피탈 누적 79개사(97명)가 참여하여 투자설명회(IR) 54개사와 193회의 투자상담(기업-VC)을 진행하였다. 앞으로도 본회는 지방 소재 유망기업들의 투자유치 고충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고 지방 벤처투자 생태계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지방유망기업 벤처투자로드쇼 제외(12/13, COEX)

투자협력·M&A

벤처투자 사랑방

본회는 200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들의 고민해결과 경영지원의 일환으로 벤처투자 사랑방을 개최하고 있다. 벤처투자사랑방에서는 기업과 투자 심사역이 1:1로 상담이 진행되며 투자유치 방법이나 가능성 진단 및 IR 자료 피드백 등을 받을 수 있다.

12월 벤처투자 사랑방은 기업 11개사와 이엑스인베스터 등 벤처캐피탈 9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2017년에도 벤처투자 사랑방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개최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사이트(cafe.kvc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환경산업 투자유치 지원사업 운영성과

본회는 2014년도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환경산업 투자유치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올해는 유망 환경기술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망 환경기업 투자설명회(4회), 환경산업투자컨퍼런스, 투자설명서 제작지원을 진행하였으며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기관의 많은 관심으로 본 사업을 통해 4개 기업이 총 53억원 투자유치에 성공하였다. 본회는 환경부가 출자하여 결성 예정인 '미래유망환경산업펀드'등과 관련하여 환경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국내 투자 유망 환경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중 벤처투자 컨퍼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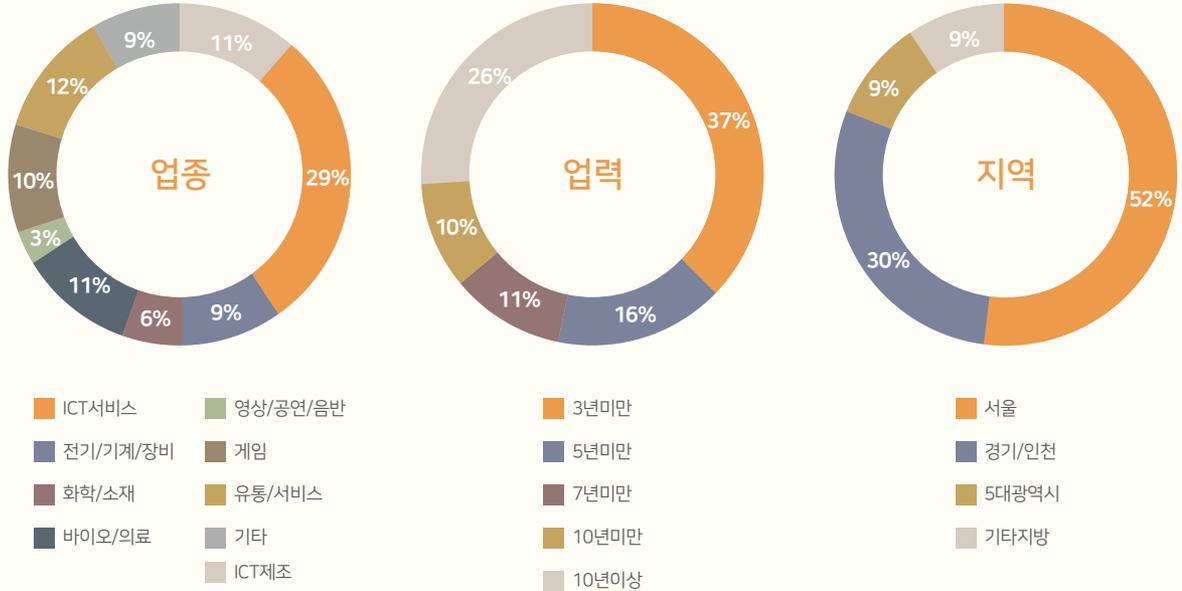
본회는 지난 12월 7~9일 중국 상하이 파크야드 호텔에서 한·중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6 한·중 벤처투자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에는 국내 벤처캐피탈 22개사 임원과 중국 벤처캐피탈 및 대기업 관계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본 행사에서는 본회와 장강문화홀딩스와의 한·중 벤처캐피탈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과 양국 벤처캐피탈 현황에 대한 주제발표, 한·중 벤처캐피탈간의 교류를 위한 VC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또한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투자유망기업 10개사 선별하여 중국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상담회를 진행하여 중국 투자기관에게 많은 관심을 얻었다. 본회는 한·중 양국간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중 교류의 장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2016년 신규 벤처기업확인 연간현황

본회는 VC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기업에 대해 벤처기업확인을 하고 있다. 2016년 한해 본회로부터 확인 받은 신규벤처기업은 총 588개사이며, 588개사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기업일반개요



2 투자유치현황

총 투자금 8,831.5억원

2016년 신규벤처기업의 투자유치금액은 총 8,831.5억원이며, 아래는 해당 투자유치금액을 금액, 유형, 재원, 투자회사별로 분석한 내용이다.

투자금액별 현황 (단위:개사)

* 벤처기업 1개사가 유치한 투자금



투자유형별 현황 (단위:개사)



* 중복포함

투자 재원별 현황 (단위:개사)



* 기타: 전문엔젤투자자, 신기술사, 개인투자조합, PEF, 기업은행 등

투자 회사별 현황 (단위:개사)



* 기타: 전문엔젤투자자, 신기술사, 개인투자조합, PEF, 기업은행 등

협회장 동정

‘The Start-up Korea, KVIC 2016’ 참석

12월 6일 한국벤처투자가 개최한 'The Start-up Korea, KVIC 2016'에 본회 이용성 회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용성 회장은 축사를 통해 ‘벤처캐피탈 30조 펀드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벤처투자가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격려했다.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벤처캐피탈, 중소·벤처기업, 유관기관 등 3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모태펀드 및 자펀드의 1년간 운용성과를 공유하고 벤처생태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시상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6 한국여성벤처협회 송년의 밤’ 참석

본회 이용성 회장은 12월 13일 개최한 2016 한국여성벤처협회 송년의 밤에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는 소통(Talk-up), 균형(Blance-up), 성장(Grow-up) 등 3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회원사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달려온 지난 1년의 발자취 영상을 통해 한해를 되돌아보는 자리가 되었다.



회원사 소식

회사명, 대표이사, 주소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회사명	산수벤처스	원브릿지캐피탈
대표이사	박종홍, 김준영	박종홍, 송정화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23(역삼동, 큰길타워) 502호	

대표이사 변경

회사명	변경 전	변경 후
레드배지퍼시픽	김병국, Jonathan C.Kim	김갑수
원익투자파트너스	이용성	이용성, 김기식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박성철	박성철, 김상철

[네오플릭스]

3년 전 투자했던 코미코의 코스닥 상장 추진 속에 회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반도체장비 세정업체 코미코는 최근 거래소에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으며 내년 2월경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동훈창업투자]

공동대표를 제외한 임직원들 대다수가 사표를 제출했으며 이달 중순경 퇴사 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투자 심사역들은 다른 창업투자사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으며 행선지도 이미 결정됐다. 동훈창업 측은 "회사 운영 방향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상장에 성공한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가 총 1000억원 규모의 벤처조합 2개를 결성했다. 580억원 규모의 'DSC유망서비스산업펀드'와 420억원 규모의 'DSC Follow-on 성장사다리펀드'이다.

[마그나인베스트먼트]

오스테오닉(2012년 설립된 의료용 골접합용 기기 제조업체)이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 10억원어치를 단독 인수했다. 투자금은 운용 중인 '마그나4호 빛가람 펀드'를 통해 조달했다.

[소프트뱅크벤처스]

국내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1,000억원 규모 펀드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초 결성을 완료하고 해외 진출이 가능한 국내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450억원 규모의 '에스비넥스트미디어이노베이션펀드(이하 넥스트미디어펀드)'를 결성했다.

[센트럴투자파트너스]

케이비인베스트먼트 출신의 베테랑 심사역 박상희 상무를 영입했다. 지난 8월엔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출신의 박영찬 이사가 합류하며 임원급 심사역을 영입으로 투자본부에 중량감을 더하고 있다.

[아주아이비투자]

기술가치평가 기업에 투자하는 기술금융평가펀드(투자용 TCB)를 결성했다. 성장사다리펀드 운용기관인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으로부터 펀드 위탁운용사(GP)로 선정된 지 두 달만이다.

[에스비아인베스트먼트]

150억원 규모의 'SBI 디지털콘텐츠 글로벌 익스피디션 투자조합'을 결성했다. 앞서 한국벤처투자가 실시하는 2차 정기 출자사업에서 미래계정의 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 분야 위탁운용사로 선정된지 5개월 만의 성과다. 또한 바이오 의약품 개발사 폴루스에 40억원을 투자했다.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

인수합병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루터어소시에이트코리아에서 배성환 이사를 영입했다. 배 이사는 투자 2본부에 배치된 후 주로 소병하 공동 대표와 함께 M&A 업무에 대해 호흡을 맞추고 있다.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

'성장전략 인수합병(M&A)펀드'의 첫 번째 바이아웃(buy-out) 딜을 성사시켰다. 펀드 내규에 따르면 단독 인수도 가능하지만 향후에도 SI를 끌어와 타깃 매물을 인수하는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엘비인베스트먼트]

벤처캐피탈부문 대표이사인 박기호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박 사장은 앞으로 벤처투자를 총괄하는 동시에 펀딩과 유한책임투자자 관리, 임직원 관리, 회의 주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엘앤에스벤처캐피탈 -피앤아이인베스트먼트]

20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를 공동으로 결성했다. 피앤아이인베스트먼트는 물론이고 엘앤에스벤처캐피탈 역시 세컨더리 전문 펀드는 첫 도전이다.

[원익투자파트너스]

김기식 전 현대기술투자 대표를 영입해 현 이용성 대표와 공동대표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김 대표는 향후 원익투자

파트너스에서 투자와 경영관리를 구분 짓지 않고 이 대표와 함께 회사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유안타인베스트먼트]

2011년 결성한 'KoFC 동양 파이오니어 챔프 2011-11호 투자조합'의 청산 절차에 돌입했다. 내년엔 2개의 신규 펀드 결성을 앞두고 만기가 도래한 펀드를 청산키로 가닥을 잡았다.

[유티씨인베스트먼트]

'UTC스포츠1호펀드'와 '2호펀드'를 통해 바우드(액션캠 '픽(PCI)'을 선보인 전문 스타트업)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 10억원어치를 인수했다. 올해 2월 '스포츠1호펀드'에서 바우드에 10억원을 투자했던 유티씨는 이번 투자로 총 20억원을 투자하게 됐다.

[인터베스트]

'2015 KIF-인터베스트 IT디지털콘텐츠 전문투자조합'을 통해 애니메이션 '좀비덤'시즌2에 프로젝트 방식으로 투자했다. 투자금액은 3억원이다.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CCVC신디케이트리드펀드'와 'CCVC-부산 청년창업펀드'를 통해 미스터멘션(중장기 숙박서비스 플랫폼)에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투자했다.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200억원 규모의 콘텐츠 투자조합을 결성했다. 기존 콘텐츠 펀드와 달리 한국 콘텐츠진흥원의 프로젝트 가치평가를 토대로 투자하는 첫 펀드다.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박성철, 김상철 공동대표 체제로 경영진을 개편했다. 김상철 본부장은 최근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김상철 신임 대표는 박성철 대표와 특별한 업무 분담 없이 공동으로 경영 및 투자 전반을 총괄할 예정이다.

[포스코기술투자]

주니어급 투자심사역을 대거 영입(4명)하며 '젊은 피 수혈'이라는 카드를 뽑아 들었다. 이번 인사 조치는 젊은 시각으로 유연하게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으로 파악된다.

02

이슈
ISSUE



제4차 산업혁명을 대하는 VC의 자세

제4차 산업혁명. 이 용어는 2016년초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이 글로벌 아젠다로 '제4차 산업혁명'을 내걸면서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제1차에서 제3차 산업혁명까지는 비교적 쉽게 심정적 동의가 되지만 4차 산업혁명은 그 의미가 잘 와 닿지 않는다.
왜 그럴까?

이희우
코그니티브인베스트먼트 대표
/경영학박사

산업혁명의 4단계



제1차 산업혁명은 1784년 증기기관 발명으로 기계를 활용한 생산시대가 열렸고, 제2차 산업혁명은 1870년 컨베이어 벨트가 발명이 되면서 전기동력을 활용한 대량생산시대가 열렸다. 제3차 산업혁명은 1969년 디지털식 전자제어장치(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의 발명을 기점으로 인터넷과 정보기술(IT)에 의한 디지털 혁명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 4차 산업혁명은 'Cyber-Physical System'를 모토로 내세우지만, 그 내용과 분기점이 되는 시기가 불분명하다고 느끼기에 잘 와 닿지 않는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 보자. 이번 혁명은 사이버 공간과 실제 공간과의 통합을 기반으로 한다. 2016 다보스 포럼은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로 인공지능(AI), 메카트로닉스,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나노 기술, 바이오 기술, 신소재 기술, 에너지 저장기술, 퀀텀컴퓨팅 등을 지목했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기가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단말, 빅데이터, 딥러닝,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등 응용기술이 더해진다. 이처럼 기반기술과 응용기술이 적절하게 활용되어 실질(Physical) 세계, 사이버 세계, 바이오 세계가 융합된 모습을 4차 산업혁명으로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분기점이 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기존의 산업혁명은 변곡점이 되는 시기와 획기적인 발명품이 있었다. 그것이 증기동력이고 전기동력이고 디지털식 전자제어장치였다. 그런데,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인공지능만 하더라도 1956년 미국 다트머스 대학에 있던 존 매카시 교수가 처음 AI(Artificial Intelligence) 용어를 사용한 이래 60년의 시간이 흘렀을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하다. 익숙하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획기적인 발명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과거 1차 ~ 3차 산업혁명 또한 오랜 시간을 가지고 이루어졌음을 상기한다면 의문은 풀린다.

그렇다면 왜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주요 아젠다로 삼고 여러 기술 중 인공지능을 그 핵심으로 지목했을까?

첫째, 디지털 정보 양의 급격한 증대로 인해서 그것의 지능적인 처리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맥킨지앤컴퍼니(McKinsey & Company)의 '디지털 세계화: 글로벌 흐름의 세계화 시대'를 참고하면 전통적 의미의 세계 교역(상품, 서비스, 자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추세이나 전세계 국가간 디지털 정보의 유출입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교역량(유출입) 기준으로 볼 때 21세기의 경제는 이미 데이터 유출입의 경제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의 사용자는 16억명으로 이미 중국 인구를 넘어섰고, 2014년의 데이터 유출입 양은 2005년 대비 45배 증가했다. 지금 우리는 ICT, IoT 기술 발전과 함께 디지털 데이터 증가량이 폭발하며 해당 데이터에 대한 지능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둘째, 그것은 2016년을 그 동안 축적되어온 인공지능 기술이 폭발하는 원년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2006년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튼 교수가 공개한 '인간의 뇌와 유사한 신경망 네트워크(Neural Network) 구조로 이루어진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인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리고 2012년 이미지 인식 경진대회인 '이미지넷(IMAGENET)'에서 딥러닝을 활용한 컴퓨터가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았으며 2016년 3월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이세돌을 바둑대결에서 이기면서, 인공지능의 발전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딥러닝이 인공지능의 발전에 있어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일조를 했다면, 하드웨어 관점에서 고성능 서버 및 GPU 성능의 개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계산량은 CPU만으로는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크다. 병렬컴퓨팅에 유리한 GPU를 사용하여 딥러닝에서 요구되는 엄청난 규모의 연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공지능은 변곡점을 돌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 새로운 산업을 맞이하기 위해서 산업의 초기에 자본을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CB Insight를 참고하면 미국의 경우 2011년 67건에 머문 인공지능 관련 벤처투자가 2015년에는 397건으로 6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투자단계로 보더라도 2012년에는 투자건수의 85%가 Seed, Series A에 집중되었던 것이 2015년에는 그 비중이 69%로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좀 더 그 변화를 명확히 볼 수 있는데, 2012년 기준 초기단계(Seed, Series A) 투자비중은 93%에서 2015년엔 그 비중이 33%로 축소되었다. 즉, 미국시장에서 1억 달러 이상의 메가 딜들이 Series C를 주도하고 있고, 인공지능 영역의 투자는 이미 성숙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투자영역도 초기 음성/영상 인식 관련 영역에서 금융서비스, B2B 서비스, 커머스, 의료 영상진단 등 확대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현실은 인공지능 관련 회사를 손으로 꼽기에도 부끄러울 정도이며, 스타트업을 이야기하기 전에 전문인력도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인공지능 관련 투자는 뷰노, 루닛 등 일부 영상진단 관련 회사에만 국한되고 있고 그 투자영역도 다양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시점에서 벤처캐피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벤처 캐피탈(Venture Capital)은 모험 자본이다. 'Venture'는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수반되며, 'Capital'은 안정성을 추구한다. 그렇지만 항상 'Capital' 보다는 'Venture'가 앞선다. 즉, 금융의 안정성 추구보다는 좀더 미래에 도전하고 모험을 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항상 새로운 산업은 그것을 미리 알아본 벤처캐피탈과 함께 성장해 왔다. 검색 서비스 구글의 성장은 그 서비스의 가치를 알아보고 과감한 투자를 한 클라이너퍼킨스(KPCB), 세콰이어캐피탈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의 성장은 초기에 그 가능성을 알아보고 과감히 투자한 액셀파트너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 인프라는 여전히 취약하다. 그렇다고 인공지능 산업이 주류 아이템이 되어서 증권회사, 은행 등이 투자를 할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 벤처캐피탈은 일반 금융회사들이 투자하기 전에 모험을 즐겨야 하며 그러기 위해 벤처캐피탈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원천기술의 개발 없이도 ICT 산업에서 빠른 상용화에 큰 성과를 거뒀다. CDMA 기술이 그러했고 온라인/모바일 게임이 그러했다. 향후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인공지능 영역도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핵심 알고리즘이나 하드웨어 기술은 여전히 부족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빠른 적응력으로 각 산업 영역에서 신속하게 응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간다면 결코 인공지능 시장에서도 세계 흐름에서 뒤쳐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벤처캐피탈이여 좀 더 모험(Venture)을 즐겨라.**

창업투자회사 등의 이해상충방지 내부통제기준 개정

협회는 창투자 임직원의 투자 및 회수 등 거래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방지 및 회사 또는 조합과의 이해상충 방지 체계구축을 위하여 2010년에 「이해상충방지 내부통제기준」(창업지원법 제10조제2항 등 관련)을 제정·배포하여 업계표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상장주식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사전 방지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관련규정을 지난 12월에 개정하였습니다.

아래는 금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이며, 본 규정은 표준가이드라인으로 각사의 실정에 맞게 수정 및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내부통제기준 및 가이드라인(개정안) 전문은 협회 홈페이지(정보마당 > 전문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가. 기존의 「이해상충방지 내부통제기준」 제1조에서 이해상충의 구조에 창투자 임직원과 창투자 또는 조합간의 이해상충 관계를 추가하여 임직원의 경각심 제고

현 행	개정안
<p>제1조(목적)</p> <p>본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청고시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 등(이하 위 법 등을 총칭하여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창업투자회사(이하 “회사”)와 투자조합(이하 “조합”)에 출자한 유한책임조합원인 출자자(이하 “출자자”)간, <추가> _____, 특정 출자자와 다른 출자자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 있어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p>	<p>제1조(목적)</p> <p>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회사 또는 조합과 회사에 소속된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간, _____</p>
<p>제2조(적용범위)</p> <p>① 본 기준은 회사 및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임직원(이하 “임직원”)에게 적용한다.</p>	<p>제2조(적용범위)</p> <p>① _____ <삭제> _____.</p>
<p>제5조(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등)</p> <p>① 임직원은 회사와 출자자간, <추가> _____ 특정 출자자와 다른 출자자간, 조합과 타조합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출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제5조(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등)</p> <p>① _____ 회사 또는 조합과 회사에 소속된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간, _____ _____.</p>

나. 기존의 「이해상충방지 내부통제기준」 제8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인”을 인용하던 법령이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불공정 거래행위에 임직원이 회사 또는 조합과의 이해상충 관계에서 본인의 이익을 우선시키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추가

현 행	개정안
제8조(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한 거래거절,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상 지위 남용,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 특수관계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정한 특수관계인, 이하 같음)에 대한 부당거래 및 지원행위 <추가> 등 공정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추가>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생략	제8조(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① _____ _____ _____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_____ 회사 또는 조합과의 이해상충 관계에서 본인의 이익을 우선시키는 행위 (이하 “불공정 거래행위”) _____. ②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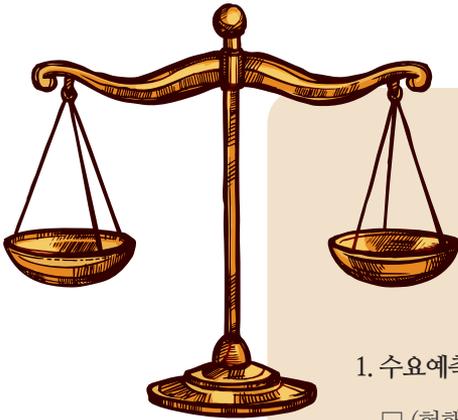
다. 기존의 「이해상충방지 내부통제기준」 제8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임직원 불공정 거래행위의 방지 및 회사 또는 조합과의 이해상충 방지효과 제고

현 행	개정안
제8조(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① <상기 참조> ② <상기 참조> ③ <신설>	제8조(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① <상기 참조> ② <상기 참조> ③ 임직원은 자기계산에 의한 투자 및 회수 등 거래와 관련하여 불공정 거래행위의 방지 및 회사 또는 조합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거래 기준 및 절차」(별첨)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 내부통제기준 제8조 제3항 (별첨)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거래 기준 및 절차」 마련

마. 기존의 「이해상충방지 내부통제기준」 제9조에서는 상장법인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에 더하여 비상장법인의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도 이해상충 관계에서 출자자 이익 우선 원칙에 위배되게 이용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

현 행	개정안
제9조(미공개 정보 등의 이용행위 금지) ① 회사업무 또는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상장법인의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된 임직원이나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은, 미공개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의 행위에 가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신설>	제9조(미공개 정보 등의 이용행위 금지) ① <현행 본문과 같음> ② 회사업무 또는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비상장법인의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된 임직원이나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은, 이러한 중요 정보를 제5조 제1항의 이해상충 관계에서 제3조에 위배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1. 수요예측시 주관사의 자율성 확대 (안 § 5)

- (현행)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의 범위를 금융회사, 펀드, 공적 연기금 등으로 한정
 - 상장주관사는 모든 기관투자자에게 수요예측 참여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
- (개정이유)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주관사가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주관사의 자율성 확대
 - 다만,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자율적 선정에 따른 공모가의 신뢰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
- (개정안) 주관회사가 창업투자회사, 벤처펀드, 사립학교 등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율적으로 추가 선정 가능
 - 다만, 이 경우 일반청약자에 대해 환매청구권* 부여
 - * 상장 후 1개월 이상, 공모가의 90% 이상

2. 공모가 결정방식 다양화 (안 § 5)

- (현행) 공모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수요예측 의무화
 - 50억원 미만 소규모 IPO에만 경매방식 또는 단일가격(주관사와 발행인이 협의하여 결정) 방식에 의한 공모가 결정 허용
- (개정이유) 공모금액이 50억원 이상인 IPO의 경우 공모가 결정방식을 수요예측으로 제한하고 있어 시장상황 및 IPO기업의 특성 등에 따라 공모가 산정방식을 다양화할 필요
- (개정안) 50억원 이상의 IPO에 대해서도 경매방식, 단일가격 방식 등 다양한 가격결정방식 허용
 - 다만, 수요예측 없이 단일가격 방식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경우 공모가가 지나치게 고가로 산정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청약자에 대해 환매청구권* 부여
 - * 상장 후 1개월 이상, 공모가의 90% 이상

3. 수요예측등 참여 기관투자자에 대한 규율 강화 (안 §9, §17의2)

- (현행) 투자행태와 상관없이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만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전적 제재를 부과
 - * 수요예측 참여 후 미청약 미납입 또는 의무보유확약 위반
 -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가 수요예측참여 제한이 아닌 금전납부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금전납부 후 수요예측 참여 가능
- (개정이유) 기관투자자의 비합리적 수요예측 참여행위 등으로 인수질서 문란 야기 및 대부분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가 금전납부를 선택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 반감
- 개정안
 - 불성실 기관투자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고, 실무상 단순 착오 및 오류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금전납부 허용
 - 비합리적 수요예측* 참여자 및 과거 1년간 상장주선한 기업의 주요주주(기관투자자에 한함)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한 경우에 한하여 수요예측 참여를 허용
 - * 공모물량 전체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명하는 등 수요예측참여 내용이 현저히 비현실적인 경우

4. 시행일 : 2017. 1. 1.

- 공모주 배정 (§9④) 관련 개정 규정은 2017. 1. 1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
 -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9④5)은 2017. 1. 1 이후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자부터 적용



벤처캐피탈 법률 Q&A



이종건
법무법인 이후 대표변호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Q ■ 2016년 12월 20일 공포(2017년 1월 1일 시행)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A ■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재무안정 PEF 상시화

- 종전에 3년 한시로 도입되어 2016.11.13일 폐지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¹⁾를 동일 내용으로 신설
-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PEF는 개정 규정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PEF로 인정

2.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 도입

- 창업·벤처기업등²⁾(중소기업 한정)에 일정비율(50%)이상 투자·운용이 의무화된 창업·벤처전문 PEF의 근거규정 마련(안 제249조의 23)
- 창업·벤처전문 PEF에 대해 소득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도 공포('16.12.20)

1)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2(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2)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기업

■ 관련 개정 조문

제249조의23(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조에서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의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다만, 해당 창업자가 창업하거나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같은 법 제15조의3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4.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5.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전문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6. 그 밖에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이 필요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②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49조의12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그와 같이 운용하고 남은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1. 창업·벤처기업등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
2.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3. 그 밖에 창업·벤처기업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로서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13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제3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9조의12제4항 및 제6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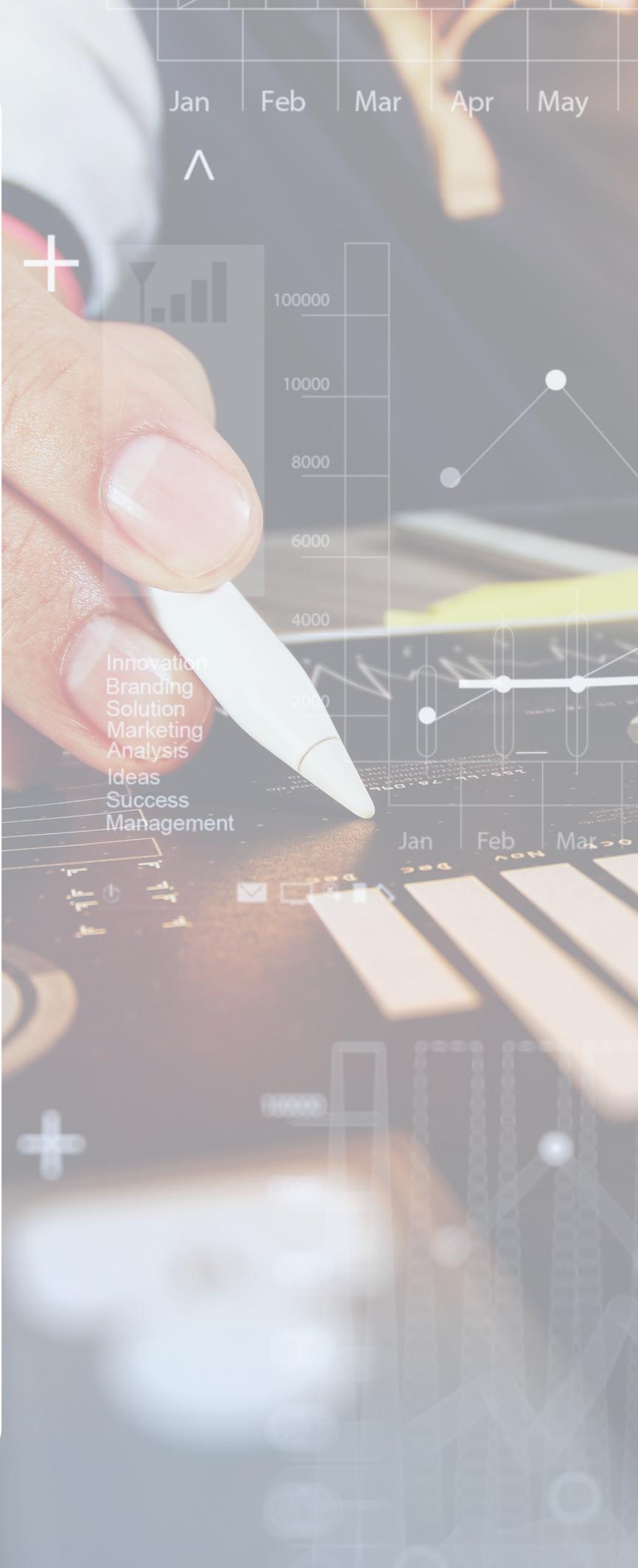
④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그 밖에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 및 운용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03

시장동향

MARKET TREND



Innovation
Branding
Solution
Marketing
Analysis
Ideas
Success
Mana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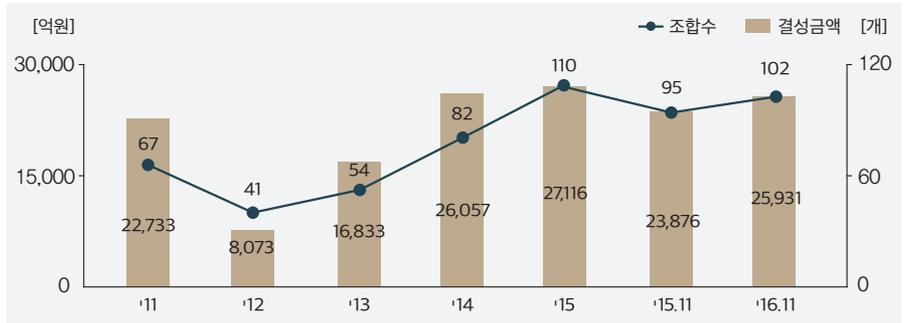
11월 벤처투자 시장동향

- 2016년 11월에 M&A 펀드 2개, 창업초기펀드 2개, IT펀드 1개, 신성장펀드 1개를 포함한 11개 조합(창투조합 9개, KVF 2개)이 1,319억원의 규모로 신규 결성되었고, M&A 펀드 중 1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모태펀드 출자 없이 결성
- 금년 11월까지 신규투자자는 18,526억원으로 전년 동기(18,359억원)대비 0.9% 증가
- 11월에는 총 167건(126개사)의 투자가 이루어 졌으며, 신규투자금액은 1,685억원으로 전년 동월(1,112억원) 대비 573억원 (51.5%) 증가
- 11월 회수는 주식매각/상환을 통한 회수가 30.8%로 가장 높았으며, 프로젝트를 통한 회수비중이 29.9%를 차지

투자재원

■ 조합결성

금년 11월까지 102개 조합, 25,931억원이 결성되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95개 조합, 23,876억원) 대비 신규결성 조합 수는 7개(7.4%), 결성금액은 2,055억원(8.6%) 증가한 수치이다.



■ 연도별 신규 결성조합 출자자 비중

- ▷ 금년 11월까지 신규 결성된 투자조합의 출자자 비중은 모태펀드를 포함한 정책기관이 26.5%로 가장 높았으며, 금융기관 25.2%, 일반법인 14.5% 벤처캐피탈이 14.4% 등의 순이다.
- ▷ 특히 벤처펀드 출자자 중 정부(모태펀드 포함), 산은/정금, 성장사다리를 제외한 민간출자자 비중이 64.6%로 전년 동기(55.9%) 대비 8.7%p 증가하였다.

조합원유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11	2016.11
정책기관 (모태펀드)	16.9 (11.7)	32.8 (24.9)	32.6 (31.4)	16.6 (14.4)	31.6 (23.6)	31.1 (23.0)	26.5 (20.9)
금융기관 (산은/정금)	23.6 (17.6)	19.9 (7.4)	26.4 (16.2)	22.2 (12.3)	22.4 (4.1)	23.0 (3.0)	25.2 (7.2)
연금/공제회	21.2	10.9	8.4	20.3	4.3	4.1	9.3
벤처캐피탈	13.4	19.6	13.1	11.4	11.5	12.0	14.4
일반법인	12.3	11.8	15.4	9.8	14.0	13.4	14.5
기타단체 (성장사다리)	7.9 (0.0)	1.6 (0.0)	1.0 (0.0)	13.1 (11.4)	10.6 (9.2)	10.8 (10.0)	6.8 (1.7)
개인	0.8	0.9	1.8	3.4	3.5	3.3	2.1
외국인	3.9	2.5	1.3	3.2	2.1	2.3	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1월 벤처투자 시장동향

■ 11월 신규결성조합 주요현황

- 미래에셋 - 미래에셋벤처투자가 300억원 규모의 '2016 KIF-미래에셋ICT전문 투자조합'을 결성했다. 이번 조합에서는 ICT 중에서도 서비스와 모바일 플랫폼 등에 특화하면서 기존 투자보다 산업적 트렌드를 따를 것으로 보이며, 메디컬·헬스케어를 접목해 신규 벤처투자에 집중할 예정이다.
- 타임와이즈 -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모태펀드를 통해 첫 출연한 기금으로 'KOREA 콘텐츠가치평가투자조합'을 결성하였다. 이 조합은 기존 콘텐츠 펀드와 달리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프로젝트 가치평가를 토대로 투자하는 첫 펀드다. 중점투자분야는 모든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되 프로젝트 투자에 70% 이상을 할애할 예정이다.

▷ 2016년 10월까지 91개가 결성된 조합은 11월에 11개가 신규로 결성되었으며, 이 중 M&A 펀드 2개, 창업초기펀드 2개, IT펀드 1개, 신성장펀드 1개가 포함되어 있다.

▷ 이 중 M&A펀드인 '스마일게이트2016KVF'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비중이 펀드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일 경우 모태펀드 출자 없이 펀드 결성 가능)으로 모태펀드 출자 없이 결성되었다.

▷ 결성금액별로는 미래에셋벤처투자의 '2016 KIF-미래에셋ICT전문 투자조합'이 300억원으로 가장 컸고,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의 '스마일게이트2016-2KVF',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의 'KOREA 콘텐츠가치평가투자조합'이 각각 213억원, 201억원으로 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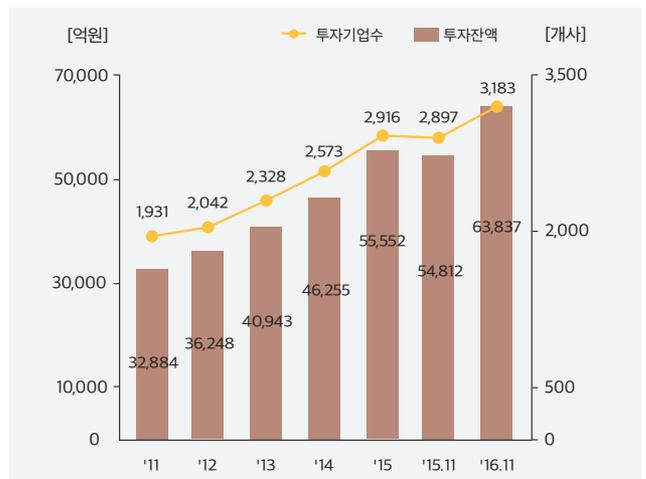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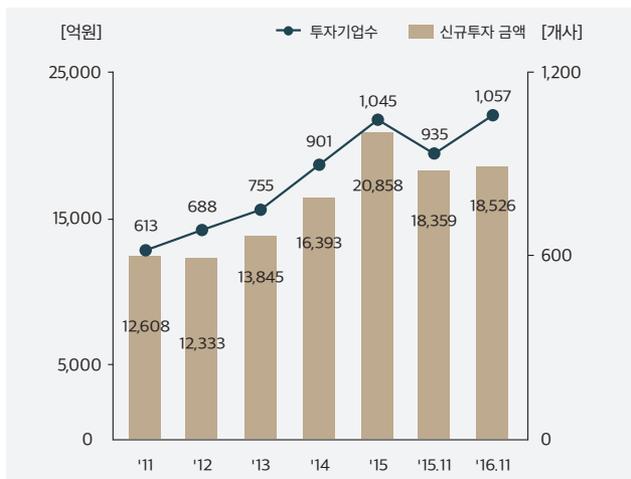
[단위 : 억원]

GP명	구분	조합명	결성금액	목적구분	투자분야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KVF	스마일게이트2016KVF	105	M&A	일반 기타
미래에셋벤처투자	창투조합	2016 KIF-미래에셋ICT전문 투자조합	300	일반	IT
더웰스인베스트먼트	창투조합	솔루션캐피탈 제1호 투자조합	55	창업초기	중소/벤처일반
지비보스톤창업투자	창투조합	지비 바이오 전문 투자조합	36	일반	바이오
마그나인베스트먼트	창투조합	2016 KIF-마그나 K-Global Start-up 펀드	170	창업초기	중소/벤처일반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KVF	스마일게이트2016-2KVF	213	M&A	일반 기타
케이티비네트워크	창투조합	KTBN 방송영상콘텐츠 전문투자조합	100	문화	영상(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에이치큐인베스트먼트	창투조합	에이치큐 신성장동력 투자조합	60	일반	신성장
에스엠시노기술투자	창투조합	에스엠시노 바이오포커스 투자조합	34	일반	바이오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창투조합	KOREA 콘텐츠가치평가투자조합	201	문화	문화 기타
새한창업투자	창투조합	새한벤처펀드4호(SHVF-4)	45	일반	중소/벤처일반

신규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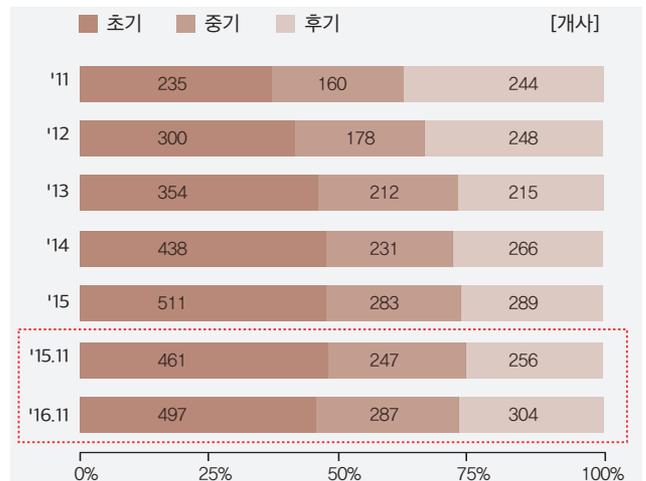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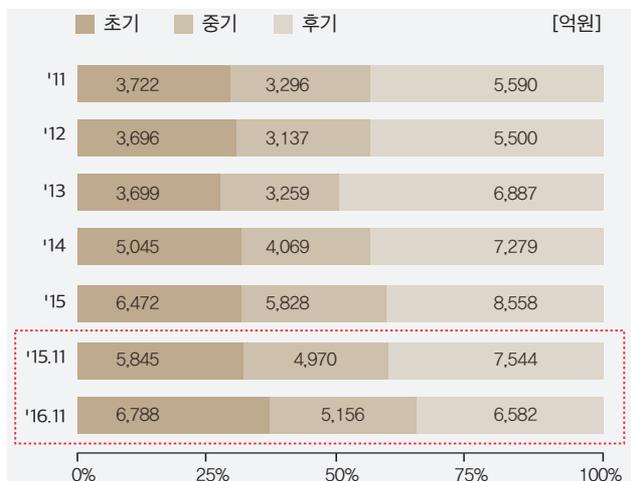
■ 전체 신규투자 및 투자잔액

- ▷ 금년 11월까지 신규투자는 18,526억원으로 전년 동기(18,359억원)보다 다소 증가한 0.9%였고, 투자업체수는 1,057개사로 전년 동기(935개사) 대비 13.0% 증가하였다.
- ▷ 11월에는 페트로코너지가 206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았으며, 씨엠엔텍, 아쿠아스타, 파나진, 에버스핀 등의 순이었다.
- ▷ 투자잔액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금년 11월까지 3,183개 업체에 6조 3,837억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다.



■ 업력별 신규투자

- ▷ 금년 11월까지 초기기업 투자금액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 동기(31.8%) 대비 4.9%p 증가한 36.7%를 기록하였으며, 후기기업 35.5%, 중기기업 27.8% 순으로 투자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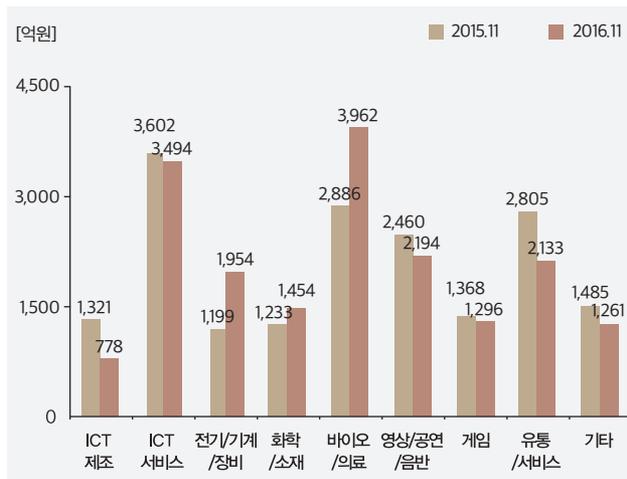
■ 업종별 신규투자

▷ 업종별로는 바이오/의료 3,962억원, ICT서비스 3,494억원, 영상/공연/음반 2,194억원, 유통/서비스 2,133억원 순으로 신규투자자가 되었으며 바이오/의료 분야가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폭(1,076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전기/기계/장비 분야도 755억원이 증가하였다.

▷ 바이오/의료 분야는 2011년 이후로 꾸준히 투자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전체 투자 규모에서 21.4%를 차지하며 지난해 투자 분야 1위였던 ICT서비스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단위 : 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11	2016.11
ICT제조	1,754	2,099	2,955	1,951	1,463	1,321	778
ICT서비스	892	918	1,553	1,913	4,019	3,602	3,494
전기/기계/장비	2,966	2,433	2,297	1,560	1,620	1,199	1,954
화학/소재	1,266	1,395	989	827	1,486	1,233	1,454
바이오/의료	933	1,052	1,463	2,928	3,170	2,886	3,962
영상/공연/음반	2,083	2,360	1,963	2,790	2,706	2,460	2,194
게임	1,017	1,126	940	1,762	1,683	1,368	1,296
유통/서비스	1,270	608	1,092	2,046	3,043	2,805	2,133
기타	427	342	593	616	1,668	1,485	1,261
합계	12,608	12,333	13,845	16,393	20,858	18,359	18,526



■ 유형별/지역별 신규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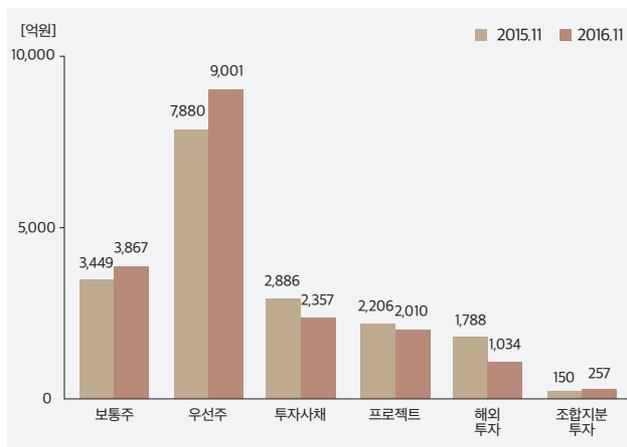
▷ 투자유형별로는 우선주로 투자한 금액이 9,001억원으로 전체투자의 48.6%를 차지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6.8%p 증가하였다. 반면 해외투자 및 CB/BW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54억원, 529억원 감소하였다.

▷ 우선주의 투자가 전년 동기(42.9%) 대비 48.6%로 확대되었고, 보통주의 투자는 20.9%로 전년 동기(18.7%) 대비 2.2% 증가하였다. 반면 CB/BW 투자 비중은 12.7%로 전년 동기(15.8%) 대비 3.1%p 감소하였다.

▷ 지역별로는 서울(53.8%)을 비롯한 수도권(76.4%) 소재기업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5대광역시 10.2%, 지방 7.8% 등의 순이었다. 해외기업에도 36개사 1,034억원이 투자되었다.

[단위 : 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11	2016.11
보통주	3,454	2,403	3,425	3,297	4,226	3,449	3,867
우선주	4,439	4,887	5,038	6,103	8,786	7,880	9,001
CB/BW	2,061	1,833	3,049	3,276	3,272	2,886	2,357
프로젝트	2,247	2,459	1,944	2,681	2,471	2,206	2,010
해외투자	407	751	389	1,036	1,951	1,788	1,034
조합지분투자	0	0	0	0	152	150	257
합계	12,608	12,333	13,845	16,393	20,858	18,359	18,526



11월 벤처투자 시장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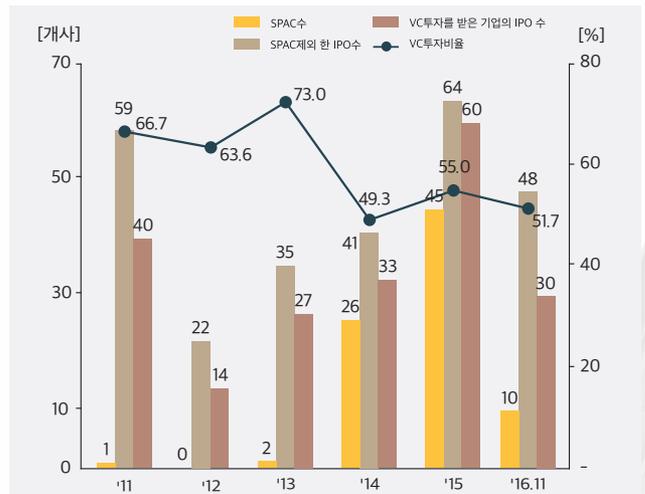
투자회수

■ 유형별 회수

- ▷ 11월까지 회수원금은 8,926억원이며, 그 중 장외매각 및 상환을 통한 회수비중이 45.4%로 가장 높았고, IPO가 29.2%, 프로젝트 18.7%였다.
- ▷ 특히, 11월 주식 투자의 회수비중이 높았는데, 36건의 거래를 통해 182억원을 회수하였으며, 이 중 매각을 통한 회수가 99억원(54.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상환 29억원(15.7%)이었다. 프로젝트를 통한 회수도 177억이었다.
- ▷ 11월에는 코스닥시장에 9개사(아이비케이에스지엠비기업인수목적, 로고스바이오시스템스, 오가닉티코스메틱스홀딩스컴퍼니리미티드, 클리오, 에스케이제3호기업인수목적, 핸디소프트, 에이치엔티일렉트로닉스, 엘앤케이바이오메드, 뉴파워프라즈마)가 상장되었으며, 이 중 아이비케이에스지엠비기업인수목적, 로고스바이오시스템스, 클리오, 핸디소프트, 엘앤케이바이오메드, 뉴파워프라즈마 등 6개사가 VC 투자를 받은 기업으로 나타났다.

[단위 : 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11	2016.11
IPO	1,080	1,220	1,072	1,411	2,784	2,276	2,602
M&A	86	72	22	163	150	140	211
프로젝트	1,102	1,533	1,613	1,639	1,605	1,391	1,663
장외매각 및 상환	주식	2,608	2,655	2,363	3,080	3,724	3,064
	채권	1,044	1,165	1,025	1,311	1,614	1,399
기타	37	188	736	217	342	292	399
합계	5,957	6,833	6,831	7,821	10,219	8,562	8,926



VC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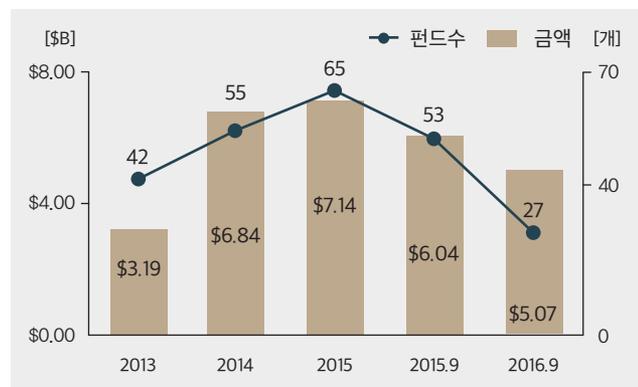
해외 3분기 벤처캐피탈 통계(중국, 유럽)

*자료: DOW JONES VENTURE SOURCE "Venture Capital Report. Europe", "Venture Capital Report. China"

투자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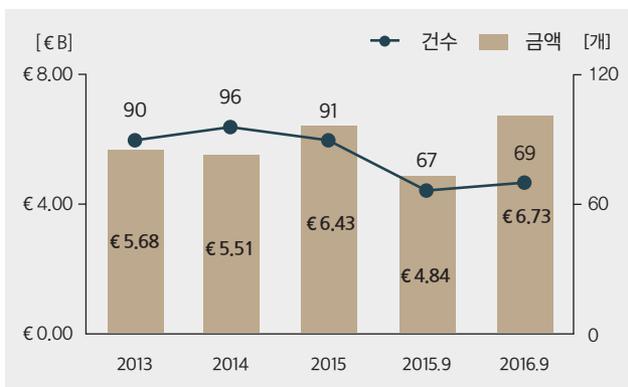
중국

2016년 3분기까지 27개의 펀드가 신규 결성되었으며 결성금액은 50억 7천만달러(5조 5,973억원)임



유럽

2016년 3분기까지 69개의 펀드가 신규 결성되었으며 결성금액은 67억 3천만유로(8조 3,044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48억 4천만유로) 39.0% 증가함



펀드결성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3	2014	2015	2015.9	2016.9
중국	35,218	75,514	78,826	66,682	55,973
유럽	70,088	67,990	79,342	59,723	83,044
한국	16,833	25,942	27,117	15,325	21,893

*환율은 2016년 9월 말 매매기준율 환율 적용 (1달러=1,104.00원, 1유로=1,233.94원)

비교

- 2016년 3분기까지 펀드 결성금액은 한국이 2조 1,893억원으로 유럽은 한국의 3.8배 수준, 중국은 2.6배 수준임

신규투자

중국

2016년 3분기까지 총 1,308건의 투자가 이루어 졌으며, 총 투자금액은 309억 1천만달러(34조 1,246억원)를 기록함



2016년 3/4분기 신규투자기업(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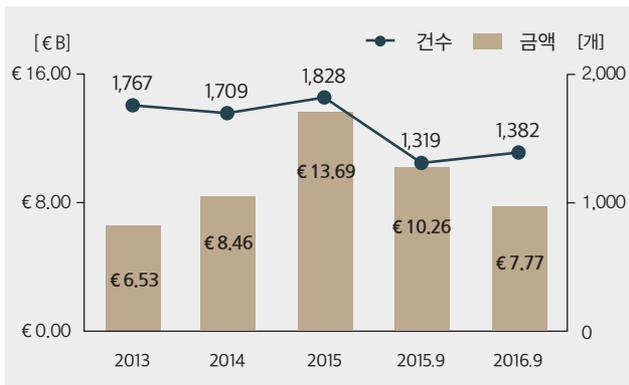
2016년 3분기 중국에서는 e-비즈니스와 통신사업을 통해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Best Logistics Technology, 개인 금융관리 플랫폼을 제공하는 Hangzhou Enniu Network Technology 등이 가장 많은 VC투자를 받은 기업임

[단위 : 백만달러]

순위	2016년 3/4분기	
	기업명	금액
1	Best Logistics Technology Co, Ltd.	760
2	Hangzhou Enniu Network Technology Co, Ltd.	310
3	Wuhan Douyu Network Technology Co, Ltd.	226
4	Shenzhen TanYun Smart Technology Co, Ltd.	215
5	Zhongshang Huimin (Beijing) E-Commerce Co, Ltd.	195

유럽

2016년 3분기까지 총 1,382건의 투자가 이루어 졌으며, 총 투자금액은 77억 7천만유로(9조 5,877억원)를 기록함



2016년 3/4분기 신규투자기업(유럽)

2016년 3분기 유럽에서는 음식배달 플랫폼을 제공하는 Roofoods Ltd.가 가장 많은 VC투자를 받은 기업임

[단위 : 백만유로]

순위	2016년 3/4분기	
	기업명	금액
1	Roofoods Ltd. (Deliveroo)	245
2	GoEuro Corp.	63
3	Heliatek GmbH	42
4	iOmx Therapeutics AG	40
5	InflaRx GmbH	31

VC Focus

신규투자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3	2014	2015	2015.9	2016.9
중국	59,726	203,026	524,621	401,746	341,246
유럽	80,576	104,391	168,926	126,602	95,877
한국	13,845	16,393	20,858	15,583	14,815

*환율은 2016년 9월 말 매매기준율 환율 적용 (1달러=1,104.00원, 1유로=1,233.94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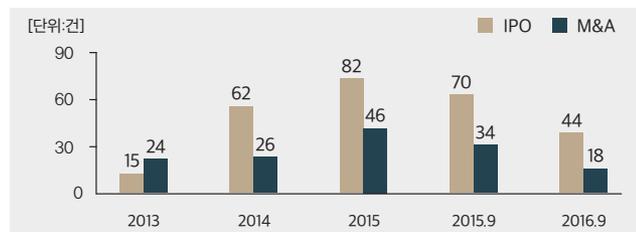
비교

- 2016년 3분기까지 신규투자는 한국이 14,815억원으로 중국은 한국의 23배 수준, 유럽은 6.5배 수준을 기록함
- 13년~15년까지의 중국의 신규투자 연평균성장률(CAGR)¹⁾은 196.4%로 유럽의 44.8%, 한국의 22.7%보다 현격하게 높았음

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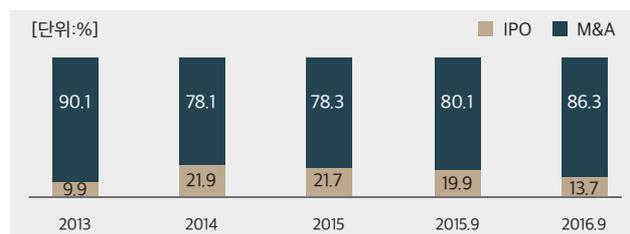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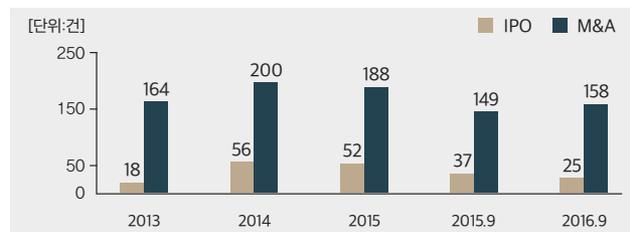
중국

2016년 3분기까지 건수기준으로 44건 (71.0%)이 IPO, 18건 (29.0%)이 M&A를 통한 회수임



유럽

2016년 3분기까지 건수기준으로 158건 (86.3%)이 M&A, 25건 (13.7%)이 IPO를 통한 회수임



비교

- 2016년 3분기까지 중국의 회수유형은 대체로 IPO를 통한 회수를 하는 한국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고, 유럽은 주로 M&A를 통해 회수하는 미국과 비슷한 양상을 보임

1) 연평균성장률(CAGR)은 기하평균으로 산출하였다.

주요 LP 출자계획 및 운용사 선정결과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투자가 11월, 12월수시 출자사업 선정결과 발표하였다. 11월 수시출자사업의 선정조합수는 10개, 모태출자액은 273.3억원으로 최소결성규모는 5,080억원이었다. 12월에는 1개조합에 모태출자액 5억원, 최소결성규모 290억원으로 마무리하였다.

■ 한국벤처투자 11월, 12월수시 출자사업 선정결과

[단위 : 억원]

구분	계정	출자분야	신청회사명	모태출자액	최소결성규모
11월 수시	중진	KVF 결성목적	소프트뱅크벤처스	10	800
			네오플렉스	10	600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5	500
			코그니티브인베스트먼트	2.5	130
			이노폴리스파트너스(유)	9.8	500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10	800
			케이엔투자파트너스	6	30
		수요자 제안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10	900
			슈프리마인베스트먼트	10	320
			문화	한중문화산업공동발전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12월 수시	중진	KVF 결성목적	플래티넘기술투자	5	290
계				278.3	5,370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지난달 공고를 발표했던 ‘KSM - 클라우드 시딩(Seeding) 펀드’의 위탁운용사로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선정되었다. 성장사다리펀드가 25억원, KSM펀드가 28억원을 출자하여 총 8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12월 19일에는 코넥스 활성화 펀드(2차)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를 발표하였는데 2개사를 운용사로 선정하여 300억원 이내의 규모로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접수는 2017년 1월 25일까지, 최종 선정은 3월 초 마무리 할 예정이다. 한편 성장전략 M&A 펀드 공고도 함께 발표하였으며 일반분야와 중기특화 증권사 분야로 구분하여 접수를 받는다. 분야별로 1개사 이내의 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으로 일반분야 750억원, 중기특화 증권사 분야 350억원 이내 규모이다. 접수는 2017년 2월 27일까지, 최종 선정은 4월중순이다.

* 공고문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홈페이지 참조(www.kgrowth.or.kr)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6일 블라인드 펀드 최종 운용사로 5개사를 선정했다. 서울투자파트너스, 아주아이비투자, 유안타인베스트먼트, 케이티비네트웍,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로 각 100억원씩 총 500억원의 매칭 출자를 받게 됐다.

군인공제회

지난 23일 군인공제회가 블라인드 펀드 벤처캐피탈분야 출자사업 접수를 마감했다. 케이티비네트웍,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메디치인베스트먼트, 서울투자파트너스, 아주아이비투자, 유안타인베스트먼트,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등이 접수하였고 출자금액은 총 400억원으로 5개 내외의 운용사에 각각 80억원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04

편집자 노트

EDITOR'S NOTE



4차 산업혁명의 지속적인 성공조건

이익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근부회장(기술경영학 박사)



2016년이 지났다. 영국의 브렉시트, 유럽 등지의 테러, 강대국의 권력교체 등 큼직한 사건이 이어졌다. 국내에서는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대통령탄핵이 정치권의 이합집산으로 이어져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었다.

1년 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의 논의 이후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커다란 기대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강의와 토론에 이어 정부차원의 대책이 뒤따르고 각계의 금년 업무계획에 "4차 산업시대"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다.

중구난방(衆口難防)으로 4차 산업육성을 외치고 있다. "혁명"이라는 용어의 파급력 때문이다. 혁명(革命, Revolution)은 종래의 관습, 제도 등을 단번에 깨뜨리고 새로운 것을 세운다는 뜻이다. 과거 수차례의 산업혁명은 인류에 엄청난 변화를 주었다. 운송은 마차 대신 자동차가, 소통은 비행기나 배를 타지 않고 실시간 스마트폰이 대신하고 있다. 세 차례 산업혁명은 엄청난 부(富)와 편익을 제공했다. 생산자는 신제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접할 수 있었다. 4차 산업의 편익은 이보다 더 클 것이라 한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두 가지 고민을 안겨준다. 해결 또한 만만치 않다. 첫째는 일자리문제이다. 정보통신기술은 제조영역에서 사람의 역할을 전부 즉, 100% 대체할 수 있다. 무인자동차, 드론, 로보어드바이저, 3D프린터 등은 인간의 지적인 영역도 수행한다. 인공지능과 ICT의 제조업융합은 급속하고 광범위한 자동화를 통해 작업자의 역할을 대체한다. 즉, 대량실업을 불러일으킨다.

1816년 영국의 러다이트운동(Luddite movement)을 상기해 본다. 산업혁명기 직조기의 급속한 보급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전국적인 기계파괴운동을 벌였다. 다행히도 그 시절에는 인구증가와 대량생산·대량소비의 산업부흥기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 갔다. 하지만 지금의 4차 산업은 여건이 다르다. 충분한 해법을 찾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다.

미 백악관의 보고서 '인공지능, 자동화 그리고 경제(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the Economy)'에 따르면 인공지능기술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미국인의 생계문

제와 임금, 교육, 직종, 지역 간의 불평등을 야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년간 로봇이 1억 3,700만 명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예측했다. 선진국에서조차도 2020년까지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4차 산업의 특성상 여러 분야에서 인간대체가 확산될 것이다. 설사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도 그 숫자는 제한적일 것이다. 우리나라도 현 근로시간기준으로 49.7%의 일이 자동화되어 일자리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과 관련하여 2030년까지 460조원의 총 경제효과와 80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지만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두 번째 고민은 산업경쟁력의 격차이다. 한국의 4차 산업이 선진국에 견줄만한가? 4차 산업은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이 상당수준에서 글로벌 경쟁을 선포한 패러다임이다. 한국이나 후진국이 불리하다. 2년 전 OECD가 발표한 제조업혁신현황에 따르면 독일이 83%, 프랑스 56%, 일본 50%, 영국 48%인 반면 한국은 38%에 불과하다. 또한 20개 4차 산업 관련기술의 국제경쟁력은 EU 91.4점, 일본 85.7점, 한국은 79.6점이다. 특히 인공지능과 스마트 카분야는 미국과 유럽에 훨씬 못 미친다. 선진국과 경쟁하려면 몇 배의 자원과 역량을 투자해야 한다. 충분한 여유자원이 있는가?

따라서 4차 산업의 추진은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앞선 정보통신네트워크, 신기술벤처창업, 세계최고수준의 GDP대비 R&D투자율, 높은 교육수준 등 강점을 살려야 한다. 그리고 통합적 변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경쟁력, 창의적 인재, 정치적 안정성, 반부패투명성, 규제해소 등의 부족한 인프라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4차 산업에 장밋빛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국제경쟁과 특정 산업육성의 논리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중소기업 등을 포함한 사회전체의 이해와 정책적 합의를 필요하다. 4차 산업의 추진에 따른 수혜자와 피해자가 다르므로 이를 감안한 스마트한 정책이 필요하다. 자칫 4차 산업 신드롬에 휩싸여 과거식의 지원만능정책을 답습하면 국가자원의 고갈, 사회갈등, 양극화 등의 문제는 심화될 것이다. 각 부처가 우후죽순의 정책을 펴기보다 통합조정에 의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 래야 4차 산업의 성과를 크게 얻을 수 있다.

본회는 지난 1990년부터 국내 유일의 벤처캐피탈 업계 소식지인 '벤처캐피탈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투자환경에 대처하고 다양한 정보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사 및 독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Venture Capital Newsletter 103호 / 2017년 1월

| 발행일 | 2017년 1월 10일

| 발행인 | 이용성

| 편집인 | 이의준

| 발행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 빌딩 3층

(TEL: 02-2156-21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3층
www.kvca.or.kr